

2010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3개월 연속 상승 CBSI 4개월 만에 하락

- 12월 CBSI 전월비 5.8p 하락한 67.9 기록,

12월 공공공사 발주 부진 및 주택경기 회복세 주춤 영향 -

-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8p 하락한 67.9를 기록함.
 - 이로써 지난 8월(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4개월만에 하락함.
 - 아울러 지수가 지난 11월 73.7을 기록해 7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한 지 한 달만에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통상 12월에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급증 영향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는 공공공사 발주가 예년에 비해 매우 부진했고, 지난 3개월 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 회복세가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CBSI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12월 CBSI의 하락 원인으로 판단됨.
- 한편, 올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9.6p 상승한 77.5를 기록함.
 - 1월 지수 전망치가 12월 실적치 대비 상승한 것은 비록 12월 실적 지수가 전월비 하락했으나, 향후 건설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만, 그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한 주택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물량 적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 또한, 공공공사 발주 부진이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CBSI가 80선을 넘어 기준선(100.0)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업체 지수가 10~11월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지난 10, 11월에 91.7을 기록해 8개월만에 90선을 회복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12월에는 전월비 14.8p 하락한 76.9를 기록해 3개월만에 다시 80선아래로 하락하며 12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지난 11월에 9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했으나, 12월에는 전월비 10.4p 하락한 70.4를 기록해 지난 10월 수준(69.2)에 근접함.
 - 한편,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9.8p 상승한 54.4를 기록함. 이는 지난 11월까지 중소기업의 지수 회복 폭이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매우 부진했고 중소기업 지수의 경우 주택경기 변화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난 11월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7~8월의 저점(50.0, 57.1) 대비 급상승(41.7p, 23.7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작년 8월 저점(39.7) 대비 4.9p 상승에 그쳤음.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3.0, 105.4를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90.0, 75.0을 기록하여 자재비 상황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5, 84.9를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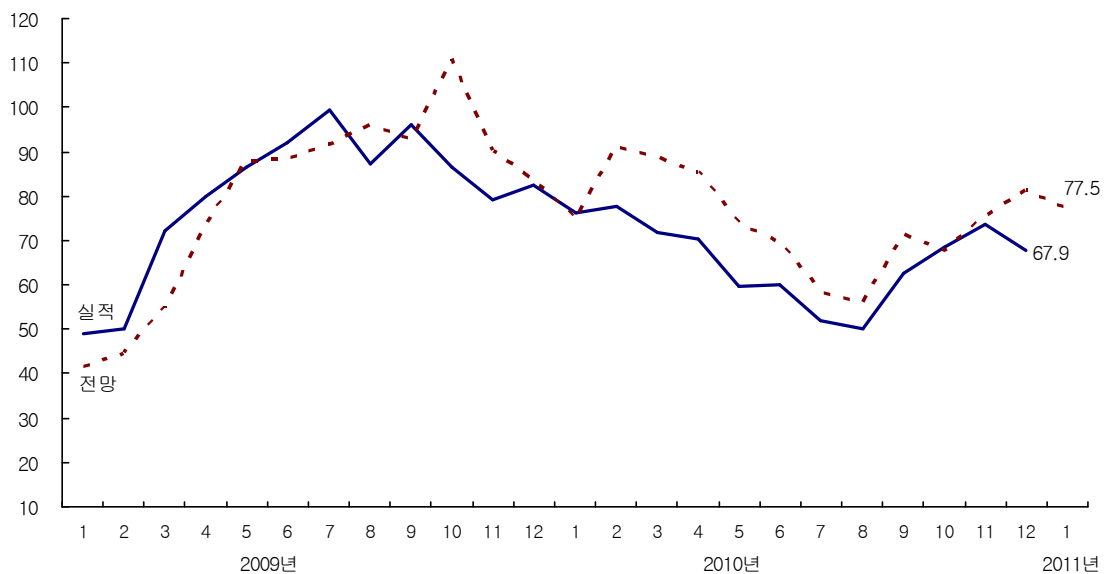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0년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2월 CBSI 5.8p 하락한 67.9 기록,
3개월 연속 상승 CBSI 4개월 만에 다시 하락

- 12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5.8p 하락한 67.9를 기록함.
- 이로써 지난 8월(50.1) 이후 3개월 연속 상승했던 지수가 4개월만에 하락함.
- 아울러 지수가 지난 11월 73.7을 기록해 7개월만에 70선을 회복한 지한 달만에 다시 70선 아래로 하락함.
- 통상 12월에는 공공공사 발주 물량 급증 영향으로 CBSI가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번에는 공공공사 발주가 예년에 비해 매우 부진했고, 지난 3개월 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했던 주택경기 회복세가 분양 비수기인 겨울철에 접어들며 CBSI를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한 것이 12월 CBSI의 하락 원인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 한편, 올 1월 CBSI 전망치는 12월 실적치 대비 9.6p 상승한 77.5를 기록함.
 - － 1월 지수 전망치가 12월 실적치 대비 상승한 것은 비록 12월 실적 지수가 전월비 하락했으나, 향후 건설경기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건설기업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 다만, 그동안 CBSI 회복세를 주도한 주택경기 회복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미분양 및 미입주 아파트 물량 적체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 － 또한, 공공공사 발주 부진이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CBSI가 80선을 넘어 기준선(100.0)에 근접하기까지 회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 중견업체 지수가 10~11월 수준으로 하락한 반면,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규모별 · 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2010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1년 1월 전망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77.6	71.7	70.5	59.5	60.1	51.9	50.1	62.6	68.5	73.7	67.9	81.3	77.5
구 모 별	대형	92.9	78.6	80.0	64.3	69.2	50.0	50.0	71.4	91.7	91.7	76.9	100.0	100.0
	중견	80.0	70.4	63.0	63.0	57.1	57.1	59.3	69.2	69.2	80.8	70.4	84.0	80.8
	중소	56.9	65.0	67.9	50.0	52.6	48.3	39.7	44.8	40.4	44.6	54.4	56.4	47.3
지 역 별	서울	90.1	73.8	74.6	63.5	63.5	54.0	55.0	69.6	84.4	91.2	75.3	94.2	88.3
	지방	59.6	68.4	64.4	53.9	56.9	48.8	42.2	51.7	45.1	46.6	56.7	61.8	61.3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 지난 10, 11월에 91.7을 기록해 8개월만에 90선을 회복했던 대형업체 지수는 12월에는 전월비 14.8p 하락한 76.9를 기록해 3개월만에 다시 80선아래로 하락하며 12월 CBSI 하락을 주도함.
- － 중견업체 지수 역시 지난 11월에 9개월만에 다시 80선을 회복했으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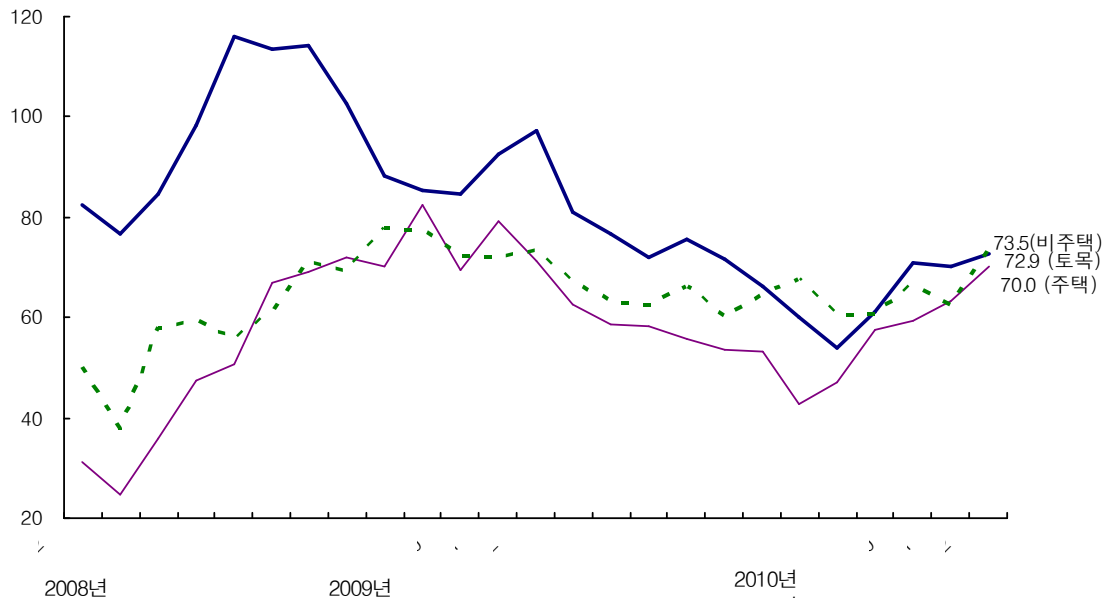
12월에는 전월비 10.4p 하락한 70.4를 기록해 지난 10월 수준(69.2)에 근접함.

- 한편, 중소기업체 지수는 전월비 9.8p 상승한 54.4를 기록함. 이는 지난 11월까지 중소기업체의 지수 회복 폭이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매우 부진했고 중소기업체 지수의 경우 주택경기 변화와 큰 관련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됨.
 - 지난 11월 대형, 중견업체 지수는 작년 7~8월의 저점(50.0, 57.1) 대비 급상승(41.7p, 23.7p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체 지수는 작년 8월 저점(39.7) 대비 4.9p 상승에 그쳤음.
- 지역별로는 서울업체 지수는 전월 대비 15.9p 감소한 반면,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0.1p 증가함. 그러나 지방업체의 지수는 여전히 56.7에 불과해 지방업체의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업체 지수는 지난 11월 91.2로 9개월 만에 90선을 기록하였음. 그러나 12월 75.3을 기록, 한달만에 지수가 다시 70선으로 떨어짐. 이는 지난 11월 서울시 소재 업체의 주택물량 상황의 개선이 있었으나, 12월 다시 주택물량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지방업체 지수는 전월보다 10.1p 증가한 56.7을 기록함. 비록 지수가 전월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50선에 머물러 지방업체의 경기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0.4p 증가한 75.7 기록,
12월 지수로는 2008년 12월 이후 두 번째로 80선 미만 기록**

- 12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0.4p 증가한 75.7을 기록, 지난 9월부터 지수가 4개월 연속 증가함. 그러나 상승폭이 미미하고 공사 물량지수가 통상 12월에는 80선을 넘어왔던 것을 감안하면 예년 보다는 부진한 상황으로 판단됨.
 - － 11월과 비교해서 12월 물량지수 상승폭은 0.4p에 불과함.
 - － 또한, 12월 공사 물량지수 75.7은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2월 62.7 이후 12월 지수로서는 두 번째로 낮은 수치로 업체들의 물량상황이 예년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모든 지수들이 70선을 넘었으며, 특히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보다 10.9p나 증가해 공종별로 가장 양호한 73.5를 기록함. 토목과 주택물량지수도 각각 72.9, 70.0을 기록해 전월보다 지수가 개선된 모습을 보임.
 - － 토목 물량지수는 연말 공공토목 물량 증가로 전월보다 2.9p 증가한 72.9를 기록함. 비록 전월보단 증가하였으나, 토목물량 12월 수치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 － 올해도 예산집행이 상반기에 집중되었으며, 정부의 재정집행 정상화의 영향으로 연말 공공토목 물량상황이 예년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6.7p 증가한 70.0을 기록, 지난 2009년 12월 71.2을 기록한 이후 1년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올해 계획된 공사 중 그동안 지연되어온 공사물량이 일부 진행된 것으로 보임.
 -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0.9 증가한 73.5를 기록, 주택물량과 마찬가지로 1년 만에 다시 70선을 회복함. 수주한 물량 중 관공서 물량이 최근 증가한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보임.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업체 규모별로는 대형이 전월과 동일한 100, 중건이 전월보다 2.8p 감소한 74.1을 기록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 전월보다 4.5p 증가한 49.1을 기록함.
-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0.0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 물량지수가 84.6을 기록하였으며, 주택물량도 92.3을 기록에 비교적 양호했으며, 비주택물량 지수가 기준치인 100을 기록함.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5.7	100.0	74.1	49.1	87.1	58.6
	전망	67.4	76.9	80.0	41.8	83.5	43.6
토목	실적	72.9	84.6	70.8	61.4	82.5	58.4
	전망	69.7	84.6	79.2	41.5	87.2	43.4
주택	실적	70.0	92.3	72.0	41.7	81.1	53.4
	전망	70.8	92.3	76.0	39.6	84.5	49.7
비주택	실적	73.5	100.0	72.0	44.2	87.5	52.3
	전망	75.1	100.0	73.1	48.1	84.3	60.6

주 : 실적은 2010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1년 1월 예측지수임.

- － 중건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2.8p 감소한 74.1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주택 물량지수가 전월과 동일한 70.8과 72.0를 기록하였으며 비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6.8p 증가한 72.0을 기록함.

- 한편, 중소기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4.5p 증가한 49.1을 기록함. 모든 공종이 전월보다 5.0p 이상 증가함.
 - 중소기업체의 경우 대형과 중견업체와 달리 토목공사물량 (61.4)이 공종별로는 가장 높아, 상대적으로 토목공사 의존도가 큰것으로 판단됨.
- 지역별로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1p 감소한 반면, 지방 업체의 물량 지수는 14.0p 증가함. 그러나 여전히 지방업체의 지수가 58.6에 불과해 지방의 물량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임.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11월 95.2를 기록한 이후 12월에는 8.1p 감소해 87.1을 기록함. 서울업체 물량지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11월 12.0p 이상 상승한 주택물량이 12월들어 4.9p 감소했기 때문임.
 - 지방업체는 전월보다 14.0p 증가한 58.6을 기록, 두달 연속 지수가 감소한 후 세달만에 지수가 반등함. 서울업체 지수와는 반대로 공종별로 주택물량 지수가 전월보다 26.3p 증가했으며, 비주택 물량지수 또한 21.6p 증가함.
- 2011년 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2월 보다 8.3p 감소한 67.4로 12월보다는 물량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 이는 연말 공사물량이 증가한 이후 연초에 다시 감소하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인 것으로 사료됨. 공종별로 토목물량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측됨.
- 토목 물량지수는 12월 실적치보다 3.1p 감소한 69.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주택 물량지수는 12월 실적과 비슷한 70.8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12월보다 1.4p 증가한 75.1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양호한 가운데, 자재비 및 자금조달 관련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자재부문 수급이 양호한 가운데, 인건비와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103.0, 105.4를 기록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건비 및 자재비 지수가 각각 90.0, 75.0을 기록하여 자재비 상황이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 한편,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는 90.5, 84.9를 기록해 자금조달 상황이 여전히 다소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종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금	실적	90.5	107.7	84.6	77.2	93.3	86.4
		전망	88.0	100.0	92.3	69.1	93.8	79.3
	자금조달	실적	84.9	100.0	88.9	62.5	94.0	71.1
		전망	87.2	92.3	100.0	66.7	93.7	77.4
인력	수급	실적	103.0	100.0	114.8	93.0	108.1	95.2
		전망	97.8	92.3	111.1	89.1	101.5	92.1
	인건비	실적	90.0	100.0	92.6	75.4	97.9	78.2
		전망	85.0	92.3	85.2	76.4	90.3	77.0
자재	수급	실적	105.4	107.7	118.5	87.7	113.9	92.6
		전망	105.6	107.7	118.5	88.5	113.9	92.9
	비용	실적	75.0	84.6	81.5	56.4	82.8	63.2
		전망	75.7	84.6	85.2	54.5	81.0	67.8

주 : 실적은 2010년 12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2011년 1월 예측지수임.